

지역별 경제 전망: 아시아-태평양

주요 내용

2023년은 세계 경제에 있어 도전적인 해가 될 전망이며, 통화 긴축으로 인해 세계적 성장이 위축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금융부문 문제가 이미 복잡한 경제적 상황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우울한 배경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2022년 말 무렵에 기술 분야의 수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외부 수요가 약해지고 통화 긴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는 지금까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재개를 계기로 새로운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2022년의 3.8%에서 올해 4.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2년 10월 기준 세계 경제 전망 대비 0.3%포인트의 상향 조정입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에 약 70% 정도 기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의 역동성은 주로 중국의 회복과 인도의 탄력있는 성장에 의해 이끌어질 것이고, 한편 그 외 아시아 국가들도 다른 지역들과 나란히 2023년에 저점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인 전망이 그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적 수요의 감소로 인한 압력이 전망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누그러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목표 수준을 여전히 넘고 있으며, 근원 물가는 경직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과 미국 은행 부문의 혼란으로 인한 파장이 제한적이었지만, 글로벌 금융 긴축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한 취약성, 특히 기업과 가계부문의 취약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5년 후에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중장기 예측치인 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중장기 글로벌 성장률 예측치 중 하나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 리스크는 하향쪽으로 기울어져있는데, 이는 전 세계 및 국지적인 가격 압력의 지속 가능성, 시장의 통화 정책 경로 예측과 주요 중앙 은행들의 소통 사이의 단절, 세계 금융 시장의 추가 동요, 중국의 중기적 성장 둔화가 그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더 깊은 지정학적-경제적 분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내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까지 긴축 기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예외인데, 생산이 잠재수준보다 낮으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 안정성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성 목표와 통화 정책 목표를 구분하고, 금융 안정성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가용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공공 부채와 상승하는 이자 비용은 계속된 (때로는 가속화된) 재정 긴축 기조를 필요로 하며, 재정 긴축기조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및 가계 부문의 높은 부채 부담과 연결된 취약한 부분, 그리고 시장 위험과 기업 신용 위험에 노출된 금융부문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분열 위험을 감소시키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